

좋은 공공건축 03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이들의 두 번째 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좋은 공공건축 03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이들의 두 번째 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여는 말

모두 함께 만드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하여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보육, 보건, 여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간인 공공건축물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최근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바쁘고 메마른 시민들 일상에 휴식처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공건축’이란 어떤 것일까요? 공공건축은 ‘모두를 위한’ 건축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건축 사업이 사용자 요구와 필요보다는 공급자 편의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럴듯하게 외형만 갖춘 공공건축물이 양산되어 공공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관 - 뮤지스땅스」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공공기관, 음악인,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 주체가 의견을 공유하며 활기차게 문화예술을 위한 창작 공간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이들의 두 번째 집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은 지자체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자, 설계 공모 운영기관, 심사위원이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공공건축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준비했으며, 설계자의 창의적인 설계안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든 사례입니다.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물을 낳습니다.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가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모두 함께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 inspiring to local children, their families and staff

지역의 아이들과 가족, 교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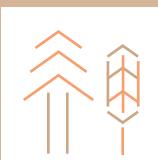
Be highly valued by the community that it serves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Be welcoming, accessible and easy to use

누구나 환영받고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



Be sustainable and respect the environment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Be flexible, supportive and responsive to changing needs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례

I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08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실험	09
어린이집의 변화	10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14

II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사업 개요	19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은 어떤 곳일까?	20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4
아이와 부모, 운영자가 모두 만족하는 어린이집	43

III 어린이집의 미래

미래를 위한 투자 :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어린이집 운영하기	50
어린이집의 실험,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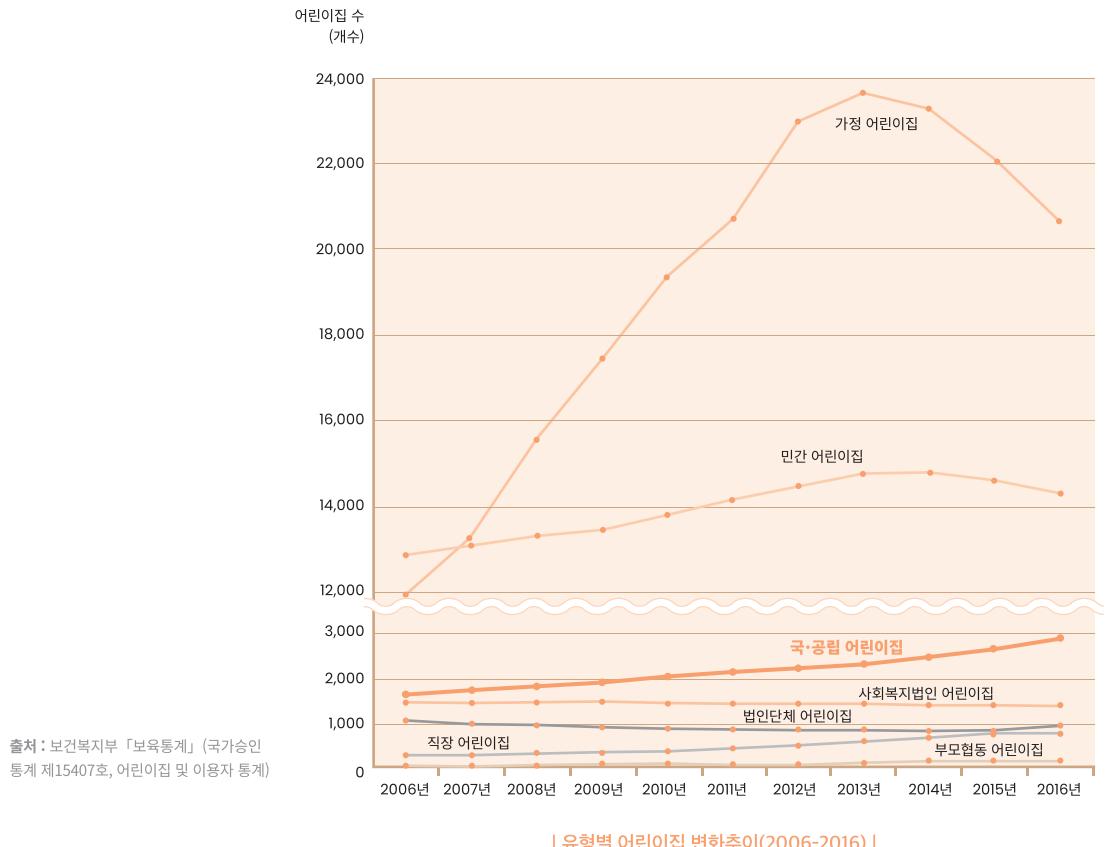


좋은 공공건축 03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고 전 세대에 걸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장해온 데 이어 현 정부에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유아 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을 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선 7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신축되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수가 2012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실험

서혜림의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2000년)과 김인철의 ‘성동구립 성수2가 3동 어린이집’(2002년)의 설계는 어린이집이 단순히 보육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의 공간인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생활공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건축의 중요한 유형으로 인식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1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서혜림 설계(2000)

출처 : 서울건축가이드 홈페이지
<http://m.archi.seoul.go.kr>
(검색일 : 2020.9.15.)

1



© 서울특별시

2



© 박영채

2

성동구립 성수2가 3동

어린이집,

김인철 설계(2002)

출처 : [작품] 성동구립 성수2가 3동 어린이집, 월간 건축문화, No.249(2002-02)

3

금천구립 도담어린이집, 임영환+김선현 설계(2014)

출처 : 딜립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dlimarch.com/kor/project/view.php?idx=2&pNo=1>
(검색일 : 2020.9.20.)



© 박영채

어린이집의 변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고 호감을 주기 위해 지붕을 특이한 형태로 설계하거나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으로 내·외부를 채색한 어린이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기에 앞서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며, 정서와 인지,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오늘날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또 하나의 집’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4



© Mikkel Fros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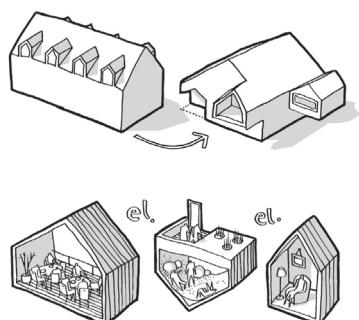
CHILDREN'S HOME OF THE FUTURE /

CEBRA 설계(2014)

덴마크 중앙에 위치한 인구 5,987명의 소도시 케르테미네(Kerteminde)에 어린이집을 설계한 CEBRA는 프로젝트를 “어린이의 집(The Children's Home)”으로 명명했다. 휴식, 놀이, 식사 등의 생활공간을 어린이집의 각 공간으로 구체화했으며 일련의 다이어그램은 건축가의 개념을 잘 보여준다.

다이어그램 1~3 출처 :

CEBRA 홈페이지 <https://cebraarchitecture.dk/project/future-childrens-home>(검색일 : 2020.9.30.)



diagram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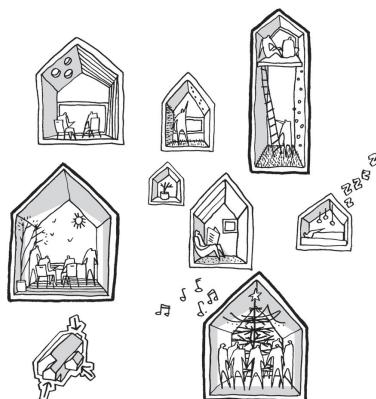
© Luis Tamay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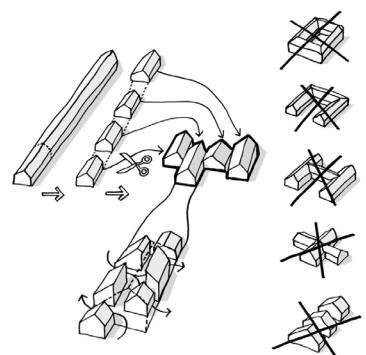
**St. Raphael Daycare
and Family Center /
GERHARD FEUERSTEIN
Architekt BDA
+ Architekturbüro Raum
und Bau 설계(2020)**

독일의 남부 도시 왕엔임알개 우(Wangen im Allgäu)에 지어진 성라파엘 어린이집은 어린이와 보육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다.

출처 : 아키테일리 <https://www.archdaily.com/942513/st-raphael-daycare-and-family-center-gerhard-feuerstein-architekt-bda-plus-architekturburo-raum-und-bau>(검색일 : 2020.10.1.)



diagram_2



diagram_3

어린이집의 변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명의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둘러싼 가로

6

SOS Children's
Village In Djibouti
Urko Sanchez
Architects(2014)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지부티의 타주라(Tadjoura)의 임대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이 함께 건립되었다. 단지의 작은 정원과 가로는 아이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이 된다.

출처 : <https://www.archdaily.com/773319/sos-childrens-village-in-djibouti-urko-sanchez-architects>(검색일 : 2020.8.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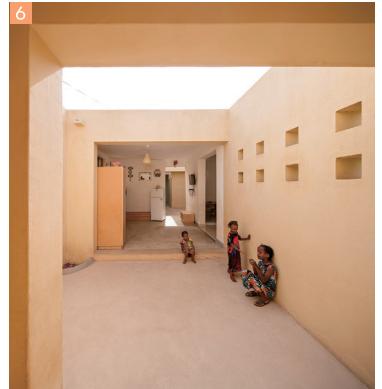
© Javier Callejas

6

SOS_Village_Djibouti_Section

출처 : <http://urkosanchez.com/en/project/19/sos-children-s-village.html>(검색일 : 2020.8.24.)

와 동네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결망의 일부분이다.



© Javier Callejas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시설 특징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동당 적정 면적과 안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에 급급할 뿐, 보육실·유희실·포복실이라는 이름의 획일적인 보육공간과 놀이공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어린이집 조성 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제정된 기준이 여전히 준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준에 얹매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영유아 1인당 시설 면적 $4.29m^2$ 이상 확보 기준이 30년간 동일함에 따라 보육 환경의 변화 반영이 필요합니다. 고무적으로 시행 중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는 유지관리 판단지표로써 한계가 있으며, 기타 관련 제 법규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양성, 활동성, 창의성 증진 등을 위한 지침이 부족합니다.

- 서영주, 「코로나 시대의 보육 환경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년) 발제 자료 발췌, (사)여성건축가협회



출처 : <https://youtu.be/hVuaWw4wrgc>

유치원은 1년 내내 열려 있고 안과 밖, 교실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원형의 지붕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옥상에 둘 뿐입니다. 아이들은 원형의 지붕을 계속 달립니다.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때때로 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 TED Talk "The Best Kindergarten You've Ever Seen"

출처 : <https://youtu.be/J5jwEyDaR-0>

인원 기준	어린이집 전용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한국 영유아보육법	50인 미만 시설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1인당 $4.29m^2$ *	
		영유아 1인당 $2.64m^2$	영유아 1인당 $3.5m^2$ 원칙

- 어린이집 전용면적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보육실 면적산정은 영유아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놀이터는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미국 미국연방 보육시설기준 (GSA)	74-150명	$8.4m^2$ /인	$2.2\text{--}5m^2$ /인 (연령별 차등적용)	$7m^2$ /인 (정원의 50% 기준)
영국 Department of Education(2009), Building Handbook : Section 2 Nursery Schools	26명 기준	영유아 1인당 $2.5m^2$ 정양실(휴식공간) $8m^2$ 포함 최소 $65m^2$ 이상	Single Unit $250m^2$ Double $500m^2$	

출처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7.

김상호 외(2016),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P.86., P.105., P.121.

김영애(2013), [특집] 어린이집 건축계획 기준,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57 n.9(2013-09)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국공립어린이집의 기획·설계단계에 적용되는 계획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유일하며 시설면적의 경우 1991년 초기 법령 제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25년동안 유지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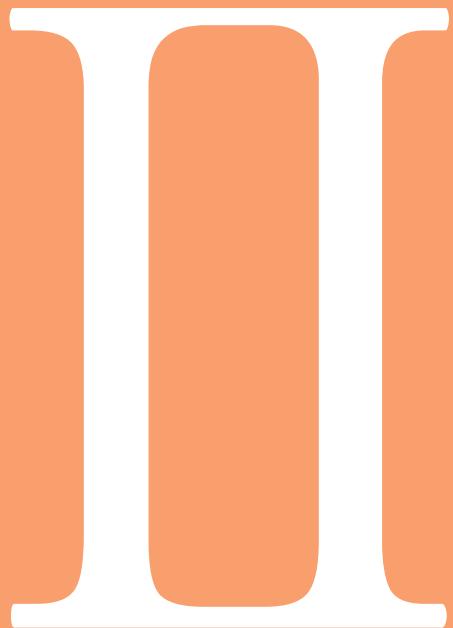
+ 김상호 외(2016),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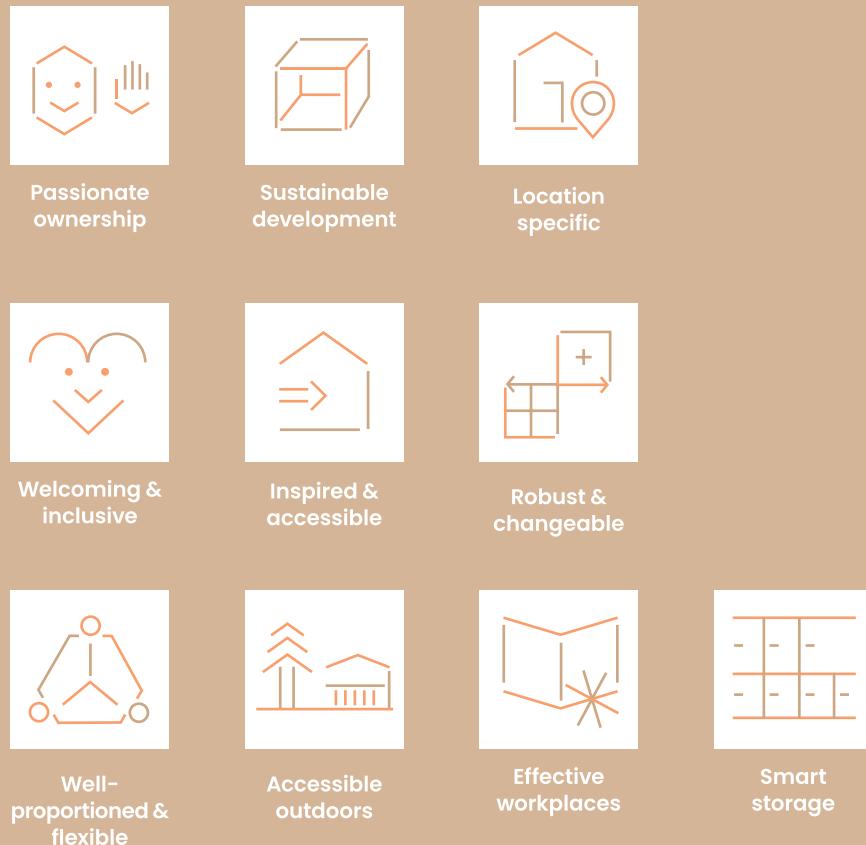


좋은 공공건축 03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국공립
연천
어린이집



What qualities should a Sure Start Children's Centre embody?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처 : 영국 건축·공간환경위원회(CABE), '영유아 및 아동시설 비전'

『Every building matters, a visual guide to designing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and other early years facilities and spaces.』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사업 개요

선정 배경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73 현가근린공원 내
용도	유아자시설-어린이집
발주기관	연천군
대지면적	11,450m ²
건축면적	597.97m ²
연면적	597.97m ²
규모	지상1층
높이	4.64m
설계	김태영·이민선
감리	김태영
시공	(주)해동건설
수상이력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사용승인(개원)일	2019.8.

연령별 반 현황

	학급/반수	아동수
만0세	2	7
만1세	3	15
만2세	2	16
만3세	2	21
유아혼합(만3~5세)	1	18
기타	3	
총원	13	77

교직원 현황

	인원
원장	1
보육교사	15
조리원	1

출처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pnis/search/preview/SummaryInfoSIPu.jsp?flag=YJ&STCODE_=POP=4095000006 (검색일 : 202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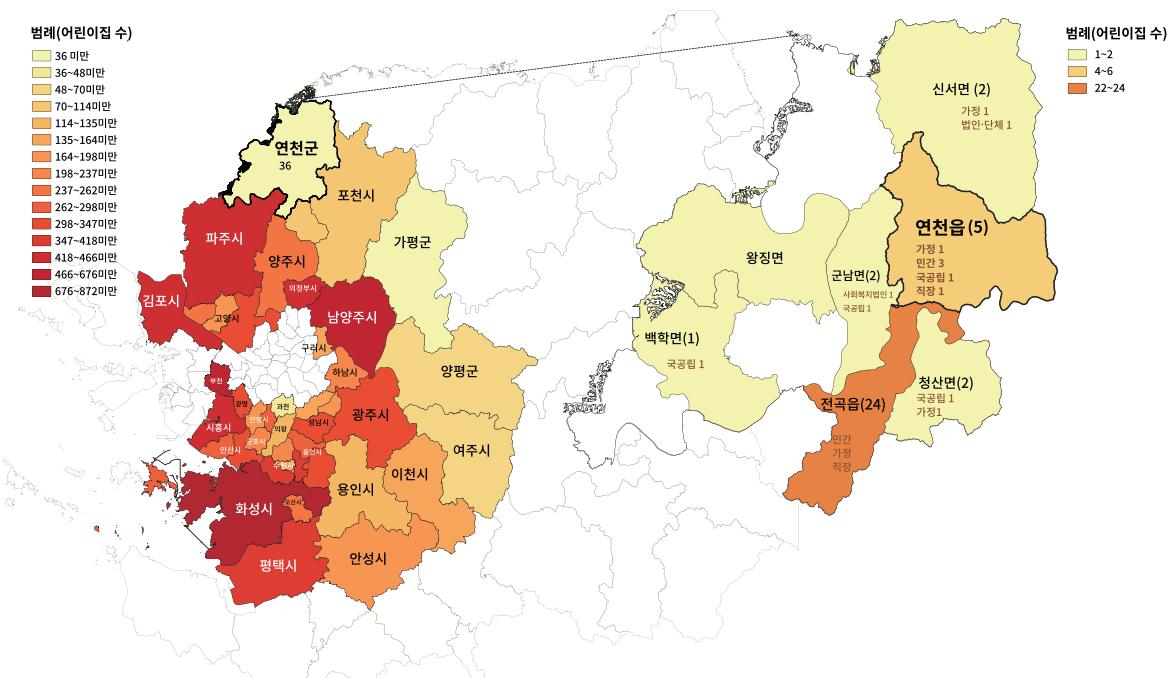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전경

©정광식

‘연천어린이집’은 어떤 곳일까?

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많은 중소도시에서는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여려 원인 중 하나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천군의 경우에도 경기도 시군구와 비교하여 어린이집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젊은 부모 세대가 정착하기 힘들고 지역 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역의 활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환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이하 연천어린이집)’은 연천군에 몇 안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 하나이다.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해를 입은 후 지속적인 누수와 균열이 발생해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천군은 군내 중심에 위치하는 노후화된 연천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및 연천군 어린이집 분포 현황

출처 :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어린이집 현황데이터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舊)
연천어린이집



연천어린이집
서측 근린공원
놀이터



연천
어린이집



현가근린공원과
연천어린이집



연천수레홀
아트홀 및
체육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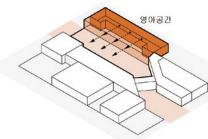


연천
공설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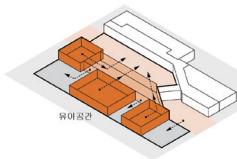


출처 : 1~4 연구진 촬영, 5~6 네이버지도
<http://naver.me/x6PBNtbB>
<http://naver.me/5Q428l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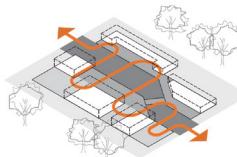
놀이 + 보육 + 자연을 하나로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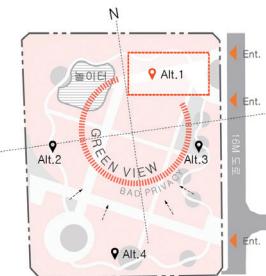
영아를 위한 유희실,
포복실을
Play-Ground와 연계



유아를 위한 유희실과
도서관, 실내놀이터를
Play-Ground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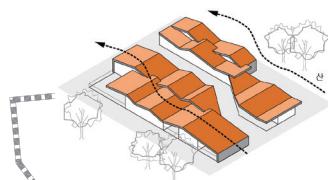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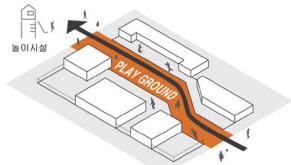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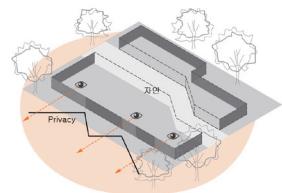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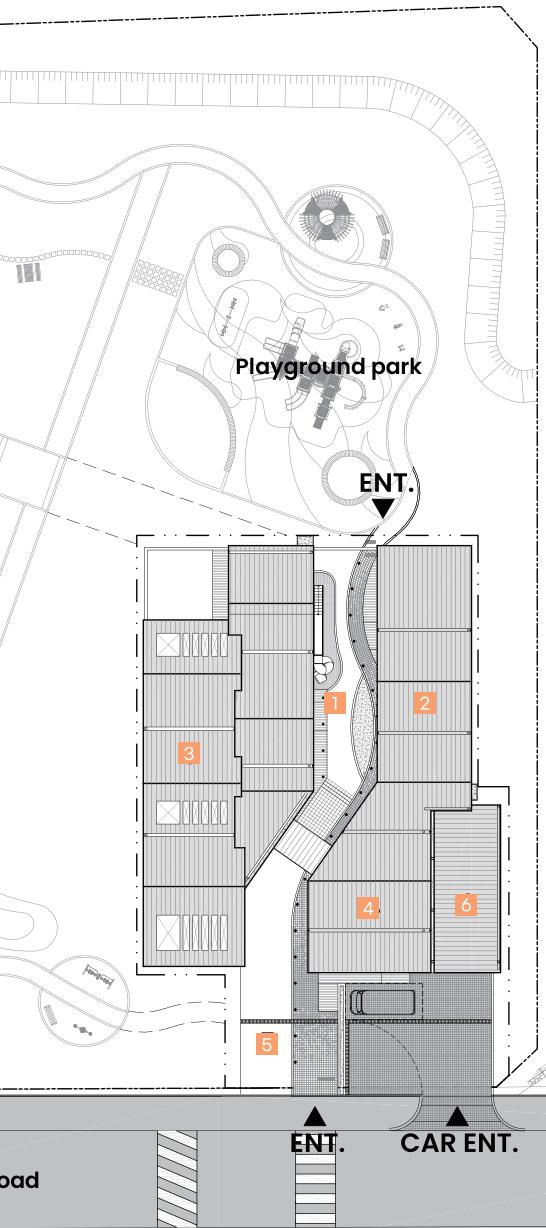
보육실과 Play-Hall은
Pocket-Garden,
Play-Ground와
인접 배치하고
실내외 공간 확장 및
연계를 통해
자연과 건물을 하나로 통합



남쪽으로 위치한 공원과
서측 놀이터와 연계하면서
차량접근이 유리한
위치로 선정

공원이 주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어린이집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근린공원의
북동쪽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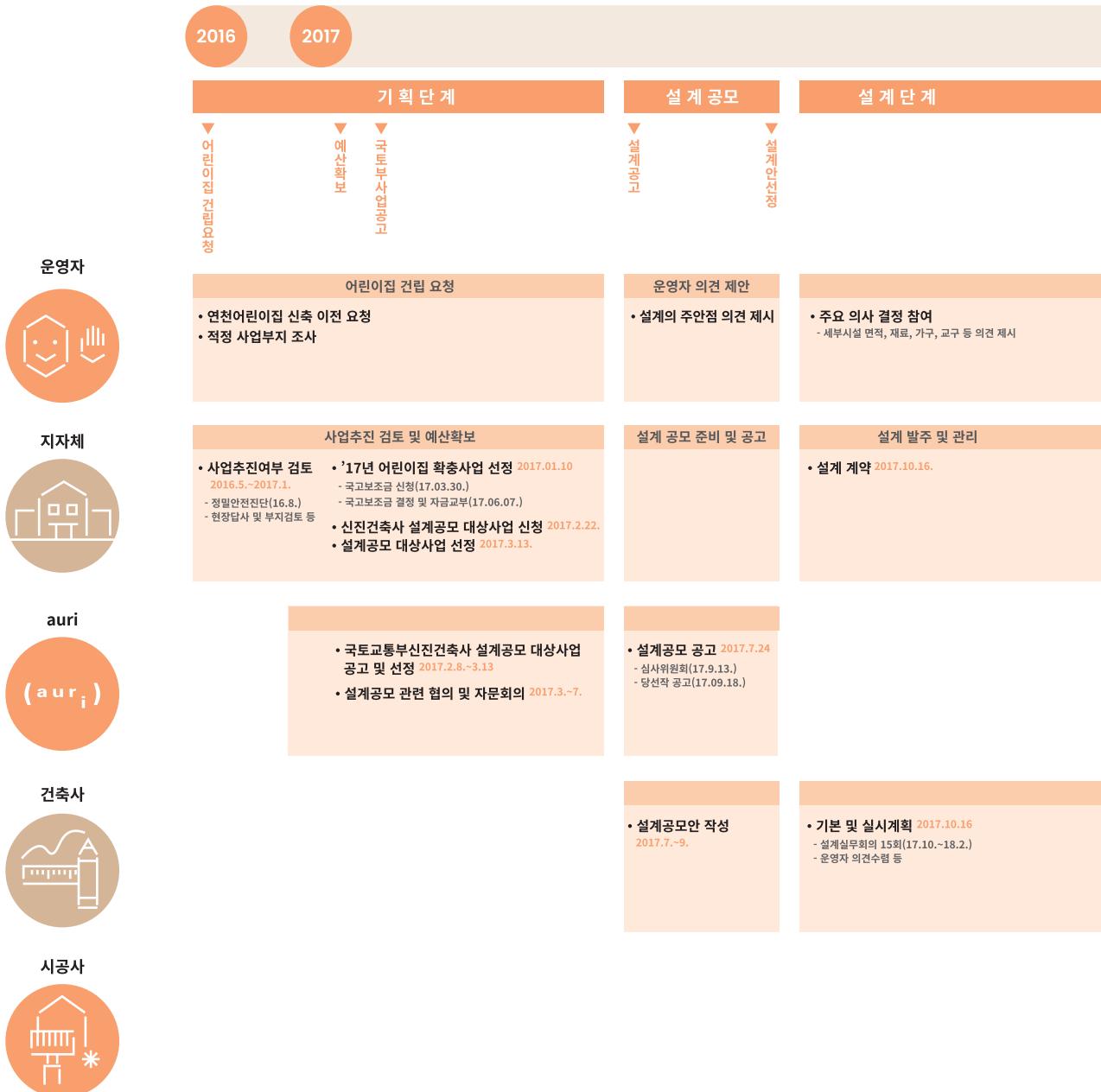




- | | |
|---|--|
| 1 Play ground
2 Infant area
3 Child area | 4 Management area
5 Front count
6 Parking |
|---|--|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무소 제공

‘연천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18

2019

설계 단계

▼ 계약변경

공사 단계

▼ 착공
▼ 착공
▼ 착공

운영 단계

▼ 종종
▼ 개관

운영자 의견 제안 및 주요 의사 결정 참여

- 주요 의사 결정 참여

운영 및 관리

- 개관 및 운영
2019.8.~현재

설계 발주 및 관리

- 허가 완료
2018.5.9.

- 공원조성 변경 계획 협의
2017.12.~2018.1.

- 실시계획인가 완료
2018.5.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2.19.-4.26.)

공사 발주 및 관리

- 공사 계약
2018.5.18
- 군계획시설(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2018.6.5

- 공원 조성공사 완료
2019.3.

운영 및 지원 관리

- 사용 승인
2019.8.5
- 운영 지원
2019.8.~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 기본 및 실시계획
- 계약 변경 1차
2018.2.13
-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토기간 및 계약심사 기간 반영
- 계약 변경 2차
2018.2.27
- 과업범위(연연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설계 완료
2018.3.5

디자인 감리

- 건축 감리 계약
2018.5.10
- 설계 변경
2019.3.15

공사 및 감리

- 착공
2018.6.11
- 공사 완료
2019.8.5
- 공사 기간 연장
2018.10.23
-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통재화 시험,
관급자재(철근) 수급 지연, 폭염,
우기에 따른 공기 확보 등

기획단계

조성 과정

추진배경

연천어린이집은 1996년 침수 피해 이후 건물 내·외부의 지속적인 누수와 균열의 발생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6년 이전 신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1997년, 1999년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여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시설 복구가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습기, 곰팡이, 누수 등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천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017년에 연천군 보육아동팀 담당 공무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신축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연천어린이집 신축 이전 작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어린이집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어린이 보육 환경에 유해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이후 사업 승인 및 예산 확보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으며 현장 심사 등을 거쳐 2017년에 최종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는 “C” 등급으로 판단되어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를 한다면 사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곰팡이 및 누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영유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환경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 종합하면 제시된 방안으로 보수를 한다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곰팡이 제거를 위한 바닥공사의 경우 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가 상승하여 신축공사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닥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킬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곰팡이 억제를 위한 바닥공사와 유지관리 비용,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공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교육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공립 어린이집(연천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2016.8.)’ 종합의견(발췌)

사업 부지 선정

어린이집 인근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천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현가리 근린공원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전할 대체 부지로 군인 휴양소, 군민회관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접근성, 예산기준 시설 철거비 등을 고려해 당시 이용률이 높지 않은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외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과 동시에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설계 공모 지침상 공원 내 어린이집의 배치 방향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7

신축 전 사업부지 현황사진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제공



연천어린이집의 지향점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주요 방향 설정 단계에서 연천어린이집의 지향점 및 운영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사업 초기부터 운영자 어린이집 원장님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설계의 주안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보육실 면적 확장,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자재 및 가구 선정 등 운영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을 구현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을 벗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 공간입니다. 따라서 규정·규율, 또는 치밀한 프로그램보다는 제2의 집과 같은 어린이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관계, 소통, 배움을 통해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이, 선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감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박장숙 원장 인터뷰 중(2020. 9. 23.)

설계공모

조성 과정

연천어린이집 박장숙 원장과 연천군 담당 공무원은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통된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우수한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접경 지역의 특성상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다소 떨어짐에 따라 설계 공모의 홍보와 우수한 건축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관 신진건축사 설계 공모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건축공간연구원 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대행을 통해 설계 공모의 신뢰도와 공정성, 대외 홍보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품다’ ‘하나가 되다’ ‘즐기다’. 푸르른 공원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또 하나의 자연을 품고 있다.

이곳에서는 놀이와 보육, 자연과 인물이 하나가 된다.

아이들은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며 하나의 우주로 성장할 것이다.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 중



2019 공공건축상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에 선정된 연천 어린이집은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획단계부터 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기획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하여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자를 선정한 사업 기획과 당선된 계획의 구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등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초기과정부터 운영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공원 안의 교육시설 건립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도 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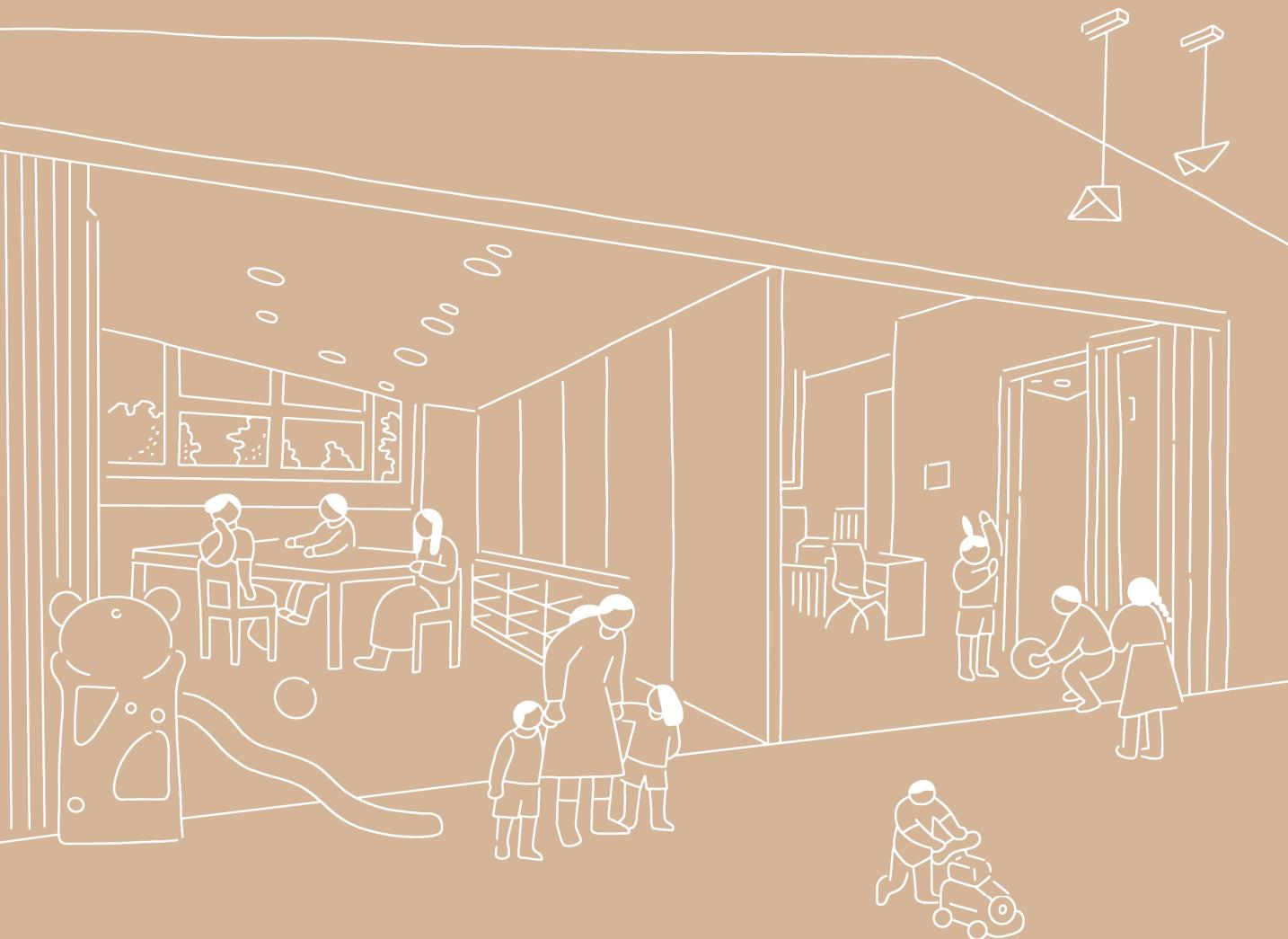
⊕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선정 의견

출처 : ‘국토교통부(2019), ‘공공건축’ 부문 심사의견서,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작품집」, p.10.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설계공모 추진경과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국토부 신진건축사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진행(시범사업 선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대행 사업으로 선정(총 4건을 선정하여 2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수행)
현장답사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3~7 현장답사, 지자체 협의 진행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7.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연구자 및 어린이집 설계 유경험자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2017.7.18. 공모방향 사전협의<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 심사위원, 발주처, 어린이집, 연구원(auri)의 설계공모에 관한 공동의 목표 공감대 형성- 참석자 : (심사위원) 김용미, 최경숙, 윤승현, 임영환, (발주처 및 사용자) 연천군 및 연천어린이집 원장 등, (설계공모 대행)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연구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취지와 주요 심사방향, 연천어린이집 사업 및 부지여건을 설명-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자가 감리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논의- 각 시설의 세부시설계획(space program)은 필수적으로 반영할 실과 실별 정원을 명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설계자가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필수실 명시 : 보육실, 화장실, 원장실 및 교사실, 조리실, 자료실, 도서관, 세탁실, 유희실, 현관, 보일러실 등
설계공모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7.25 설계공모 공고 연천어린이집, 백학어린이집 공고
현장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8.2 현장설명회 연천군청 구관 2층 재난종합상황실 (63개 업체 참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9.8. 작품제출 건축공간연구원(auri) 종회의실 (24개 업체 제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9.13. 심사 건축공간연구원(auri) 종회의실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9.28. 심사결과 공고

출처 : auri 내부자료



설계단계

조성 과정

자연의 5가지 요소와 누리교육과정을 반영한 공간 디자인

자연의 5가지 요소 빛, 바람, 땅, 나무, 물을 반영한 실내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필수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빛



바람



땅



나무



물



누리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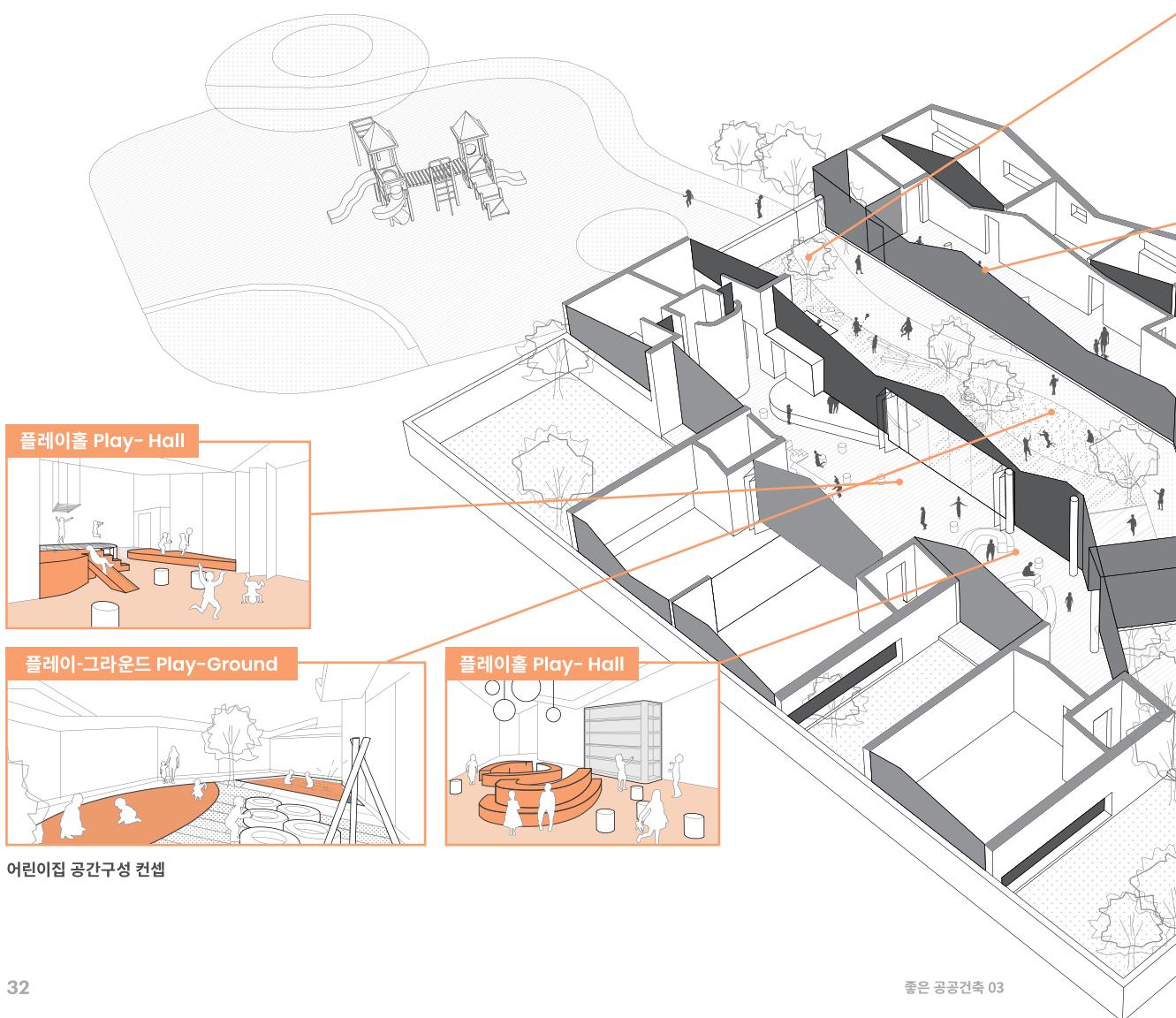
누리교육과정은 국가와 아이의 교육비를 제공하는 무상교육정책으로,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기준, 즉 국가가 정한 준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공통과정을 의미
누리교육과정을 고려하여 Play-Hall, Play-Ground에 다양한 영역의 활동공간을 배치하였고,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누리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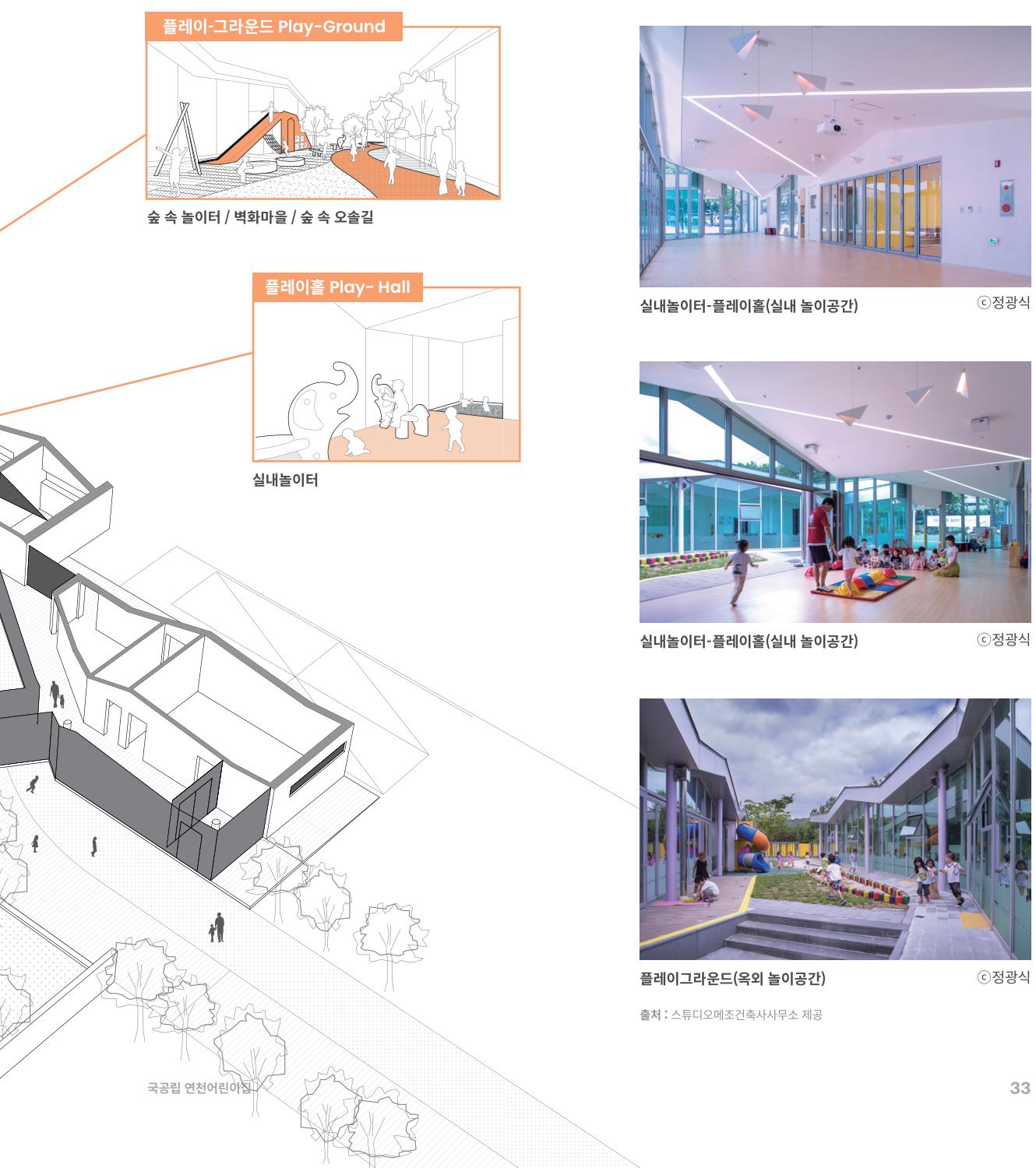
설계단계

조성 과정

사계절을 담은 작은 우주

건물의 중정 공간과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을 만지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옥외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자연의 다섯 가지 요소(빛, 바람, 땅, 나무, 물)를 활용하여 오물조물 모래놀이, 첨벙첨벙 물놀이, 숲속 오솔길을 만들었으며 아이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벚나무, 단풍나무, 산수유나무 등을 심어주었고 화단과 텃밭 등을 가꾸고 꽃과 작물의 성장을 도우며 자연과 생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설계단계

조성 과정

아이와 어른의 눈높이를 고려한 공원 속의 어린이집

부지 주변부 조망을 고려하여 외부에서는 실내 공간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배려했으며 실내에 있는 어린이가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측창을 계획했다. 또한 어린이 눈 높이에서 포켓정원 쪽 시야를 확보하여 성인과 아이의 눈높이를 모두 고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외부 공간과 공원과의 시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우드루버를 설치했는데 아이들이 공원 밖을 보는 근거리 시선은 열어 두고 외부인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원거리 시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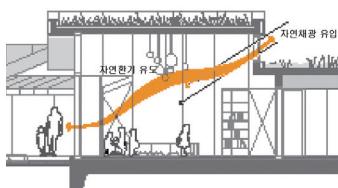
8

어린이집 전경 및 우드루버

8



©정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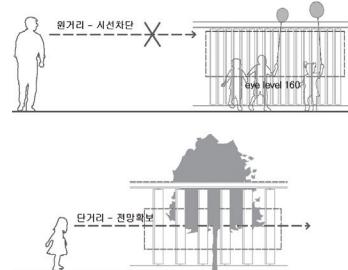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창호계획

남쪽의 고측창을 통해 풍부한 자연채광을 유입하고 높이차를 갖는 창을 통해 쾌적한 자연 환기를 유도한다.



Eye level | 90 & 160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며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하늘로의 전망은 열고 중정으로의 시선을 개방한다.



privacy & view

수직루버를 통해 중정 및 포켓정원으로부터 공원 밖으로의 전망을 확보한다. 공원에서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원거리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이어그램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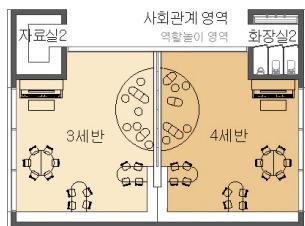
©정광식

설계단계

조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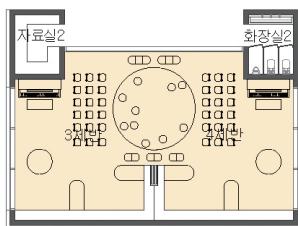
어린이집 공간이용의 효율성 및 확장성 고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른 한정된 면적 안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 외에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통합,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실내 유희 공간인 플레이홀을 계획하여 실외 놀이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까지 확장시키고자 하였으며 신체 활동이 필수인 아이들이 연령, 날씨, 대기 환경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기본 프로토타입

누리과정의 5대 활동 영역을 낮은 높이의 가구를 이용해 공간 구분. 보육실 입구에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자료실을 각각 배치



1단계 확장

두 개의 보육실을 통합하여 소강당 기능. 특별활동, 통합수업 교실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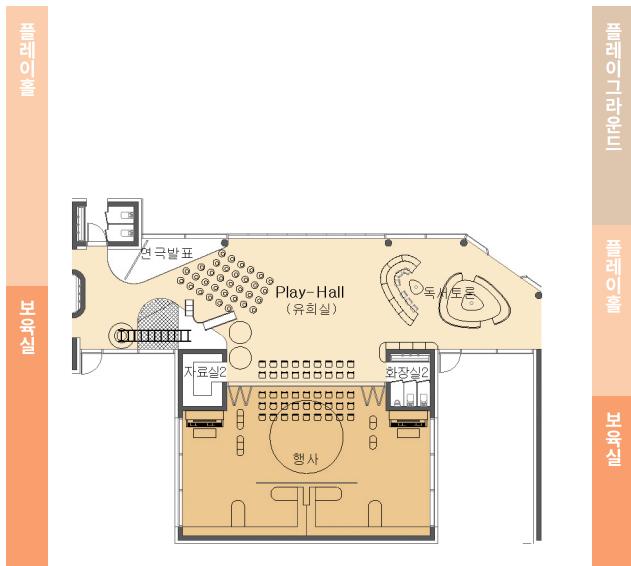
면적 구성표(Space Program) 요구사항

-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기준 연면적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을 구성
- 공식행사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이 큰 보육실 2개를 개방해서 강당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설계공모 지침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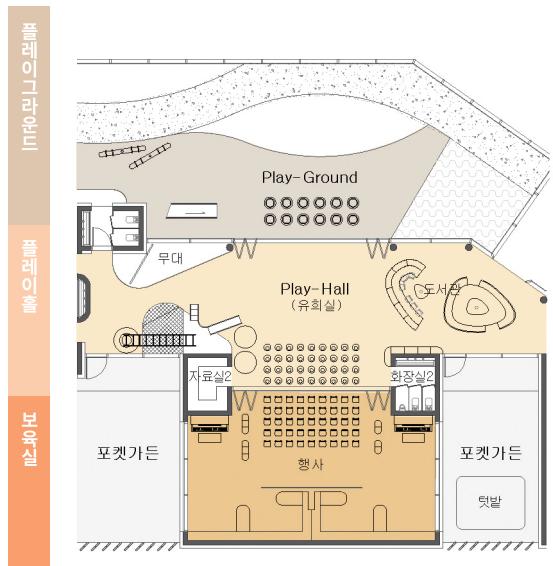


©정광식



2단계 확장

접이문(folding door)을 열어 Play-Hall까지 확장하여 대강당 기능을 확보하고 원내행사 공간으로 이용



3단계 확장

접이문(folding door)을 열어 Play-Ground까지 확장하여 연례행사나 외부행사 개최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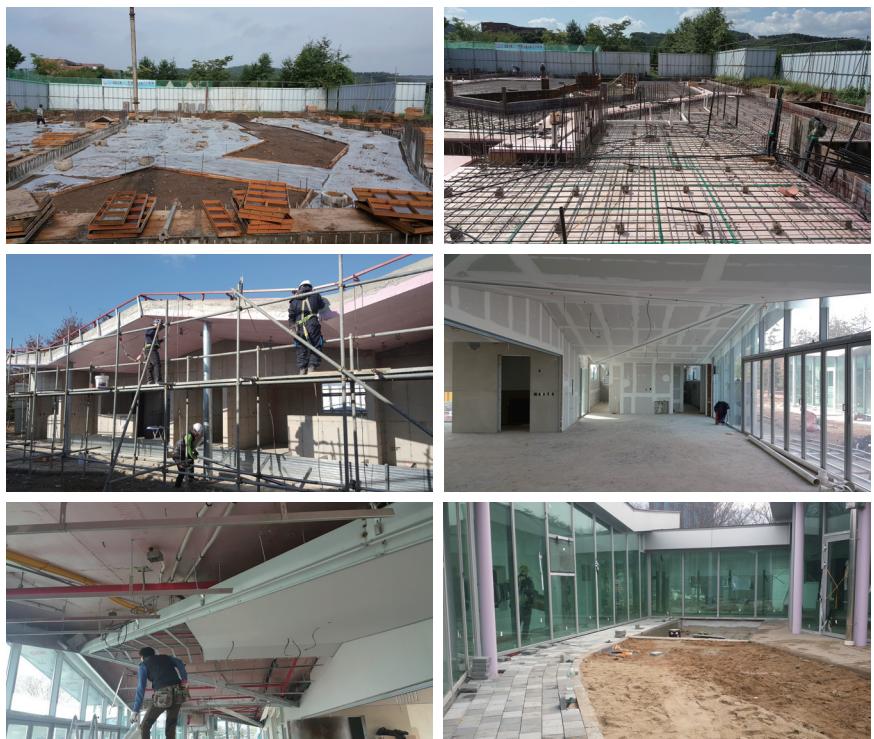
©정광식

공사 및 운영단계

조성 과정

공사 단계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시행하여 시공 과정에 설계 의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 박공 지붕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설비 공간 확보·배관, 경사면 거푸집 제작 등 복잡한 공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시공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설계안을 최대한 구현했다. 또한 설계자는 기본적인 실내 건축 마감과 빌트인 Built-in 가구 외에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인테리어와 가구, 디테일 등을 제안했고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수용되어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폭염 및 혹한기 공사 중지 기간과 철근 등 관급 자재 수급 일정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실제 계획 대비 연장, 지질 조사 결과에 따른 연약 지반 공사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였고 시설 준공 이후 옥외 놀이공간의 데크 마감의 들뜸 현상,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관리 과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제공

설계 및 공사 변경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 인증 과정에서 장애인, 아동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 및 출입구 폭, 장애인 화장실이 추가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실 면적 증가 요청을 반영하여 전체 시설 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업 범위 및 용역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심사 기간에 따른 설계 용역 기간이 약 2주 연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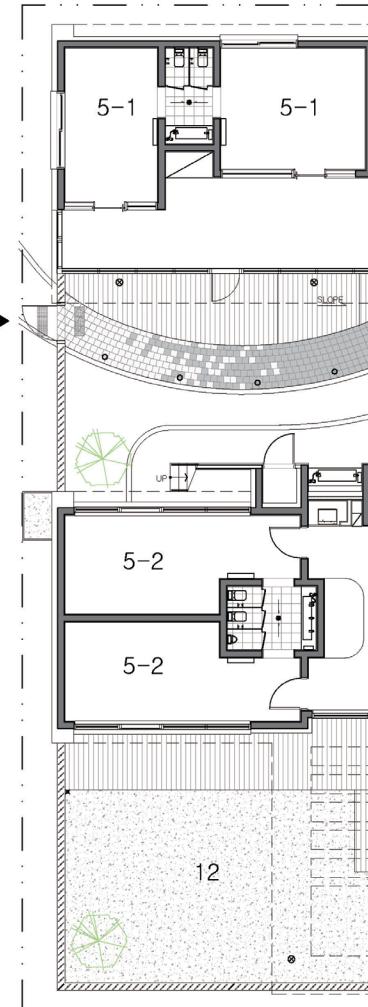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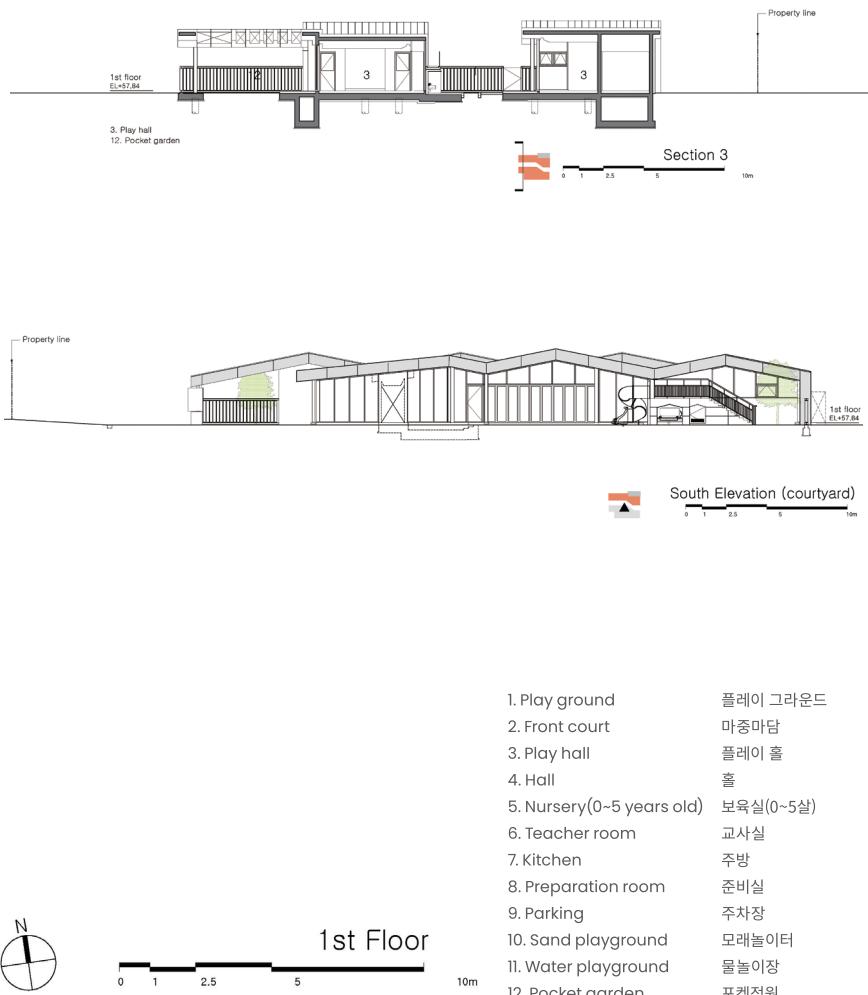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공사 과정에 설계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설계 변경과 기간 연장이 발생했다. 부지에 대한 지질 조사 결과, 연약 지반으로 확인되어 기초 공사비^{파일 시공}, 수해 방지를 위해 부지 레벨을 높이는 지면 복토 공사, 어린이 활동 공간 인증 기준 강화에 따른 재료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 자재^{철근} 확보에 일부 지연이 있었고 겨울 및 폭염기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박공 형태의 지붕 및 천장 슬라브 안에 전기소방설비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슬라브 강도 저하와 결로, 누전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노출 배관으로 변경했다. 어린이 옥외 놀이터 설치 기준을 반영해 계단 난간, 일부 놀이기구의 길이 연장 및 바닥재 추가 등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운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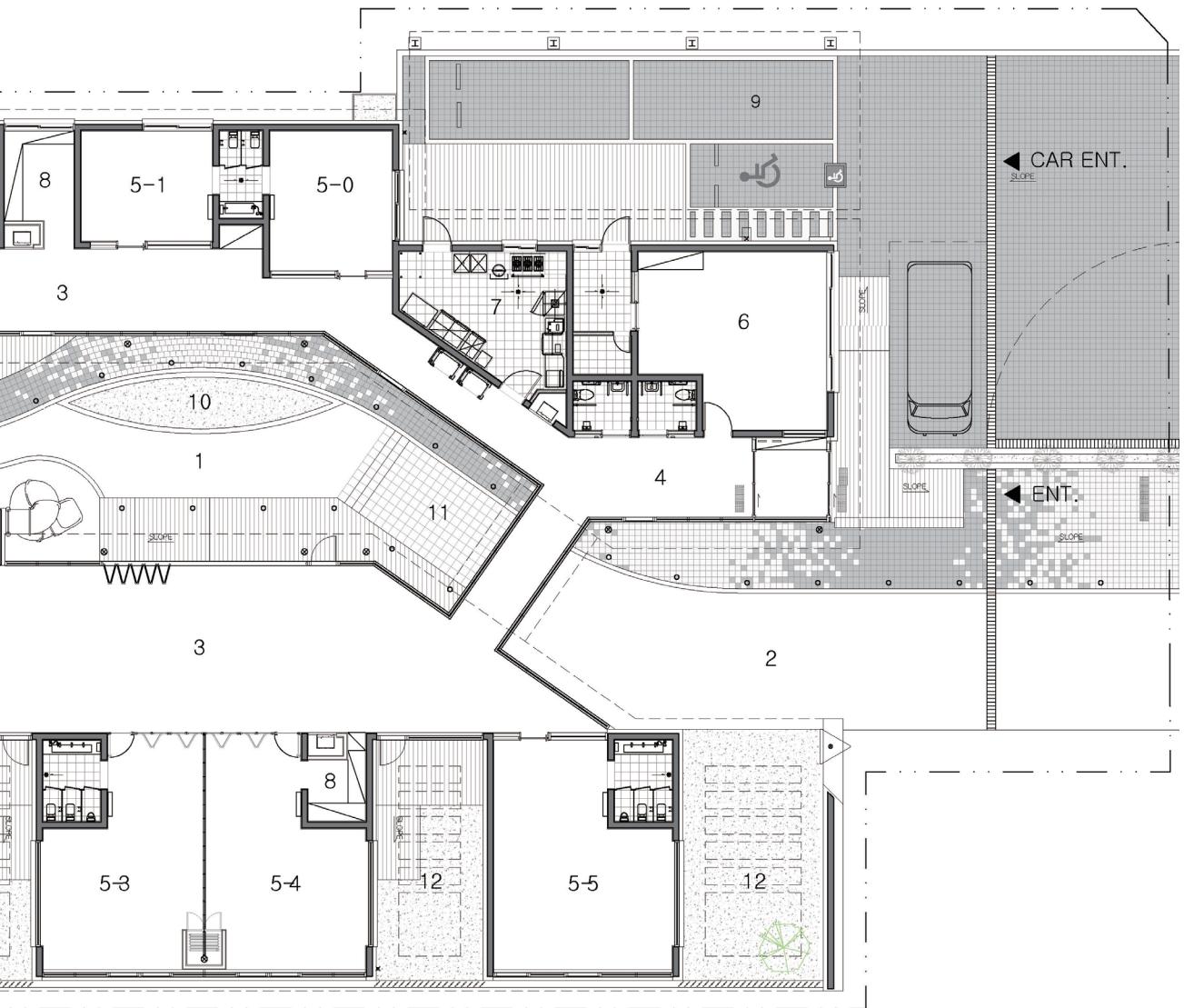
부모, 주민 행사를 위한 대공간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실-플레이홀-플레이그라운드를 여건에 따라 하나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는데,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계획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 540m²· 공사비 : 11.53억 원· 설계비 : 1억2,300만 원· 설계기간 : 3개월· 공사기간 : 7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 597.97m²· 공사비 : 22.7억 원 + 1억800만 원(가구 및 시설물) = 23.78억 원· 설계비 : 약 1억4,000만 원· 설계 기간 : 3.5개월· 공사 기간 : 10개월· 총 사업 기간 : 1년 2개월(실제 1년 11개월)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제공



출처 :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제공





아이와 부모, 운영자가 모두 만족하는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집을 나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다양한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제2의 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자와 연천군이 협력하여 준비하였다. 부지 선정에서 설계 발주, 설계 및 공사까지 사업 전주단계에 걸쳐 사업 관계자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했으며 아이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신축 이전 후 개원 1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실제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운영자는 이 공간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18일에 걸쳐 이용자 학부모 47명, 운영자 원장 및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비대면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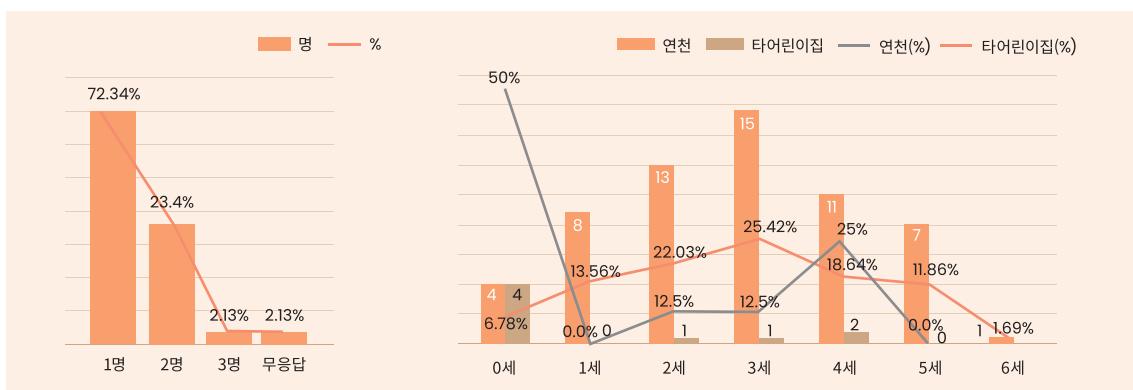
구분	연령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용자 (어린이)	4	8	13	15	11	7	1
합계	59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0	0	0	0
운영자	여성	8	1	3	1
합계				14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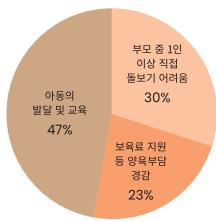
학부모의 경우, 한 가정 내 2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 응답을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총 이용자 응답자 수는 59명이다. 등원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4명^{72.34%}, 등원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1명^{23.4%}, 3명 이상 및 무응답은 1명^{2.13%}으로 나타났다.

등원 자녀 연령대는 0~6세로 분포하며 3세 아동이 전체 25.42%로 가장 많고 2세^{22.03%} 및 4세^{18.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세가 전체 아동의 약 66%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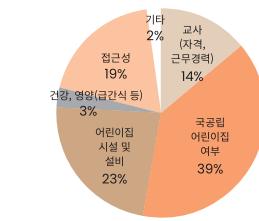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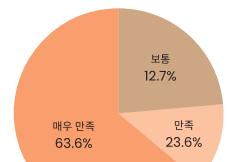
학부모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로 아이의 발달을 위한 교육 47%, 직장 등으로 인한 돌봄 30%, 양육 부담 감소 23% 순으로 응답했다. 연천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 39%,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가 우수 23%, 운영자 및 교사에 대한 신뢰 14%, 접근성 우수 19%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천어린이집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7.2%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63.6%에 이르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12.7%로 불만족스럽다는 1명을 제외하고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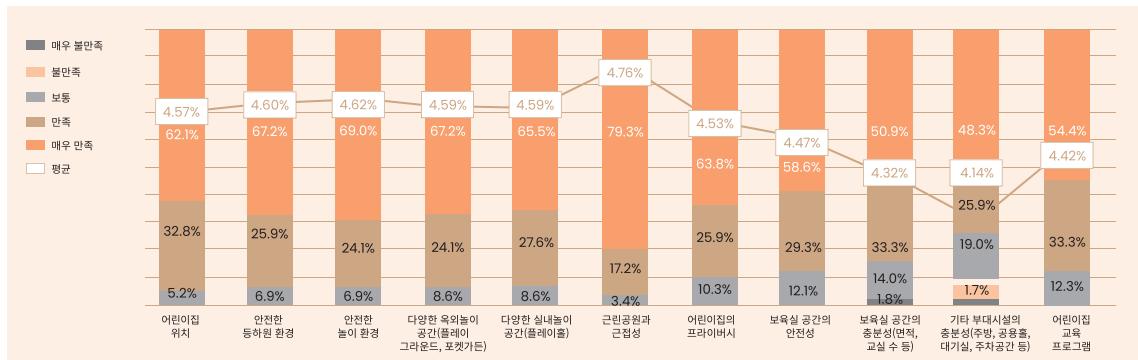


| 연천 어린이집 선택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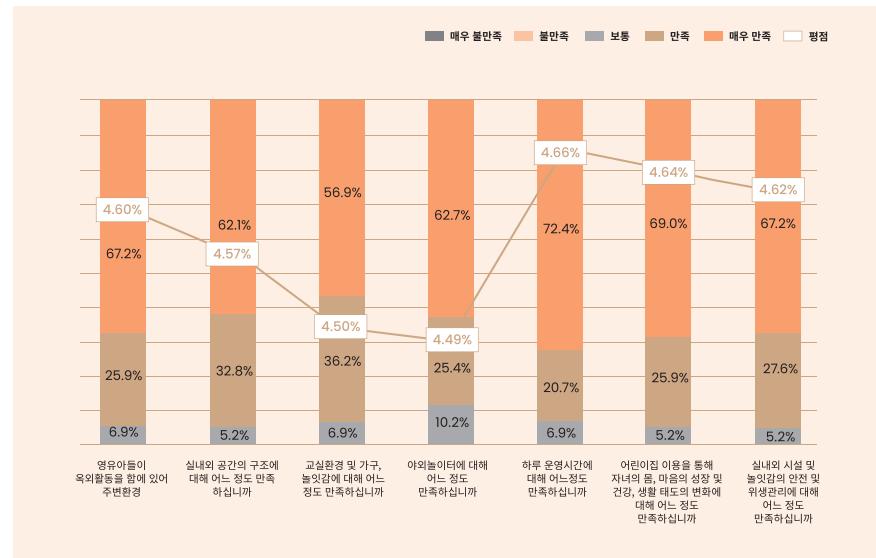


| 연천어린이집 만족도 |

연천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의 ‘두 번째 집’이라는 개념에 충실히 시설을 조성하고 신뢰 성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내·외 놀이공간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보육실 및 대기 공간 등이 협소하거나 부족한 공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시설의 운영 및 안전한 환경 확보, 공원 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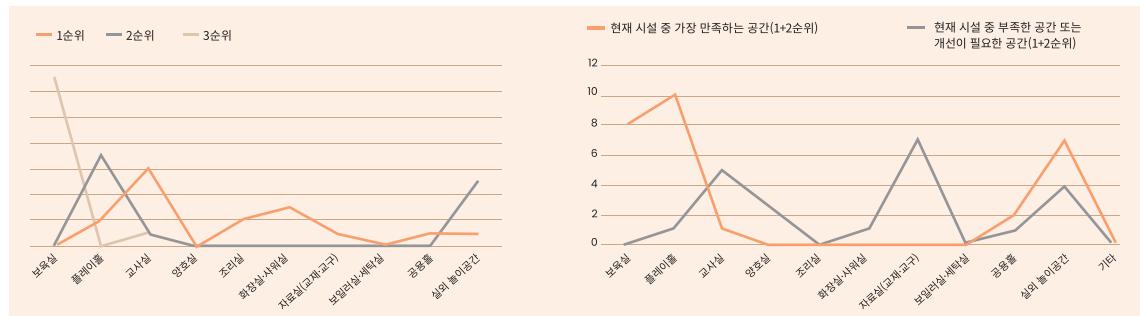
| 시설(공간환경) 만족도 |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운영관련 이용자 만족도 |

운영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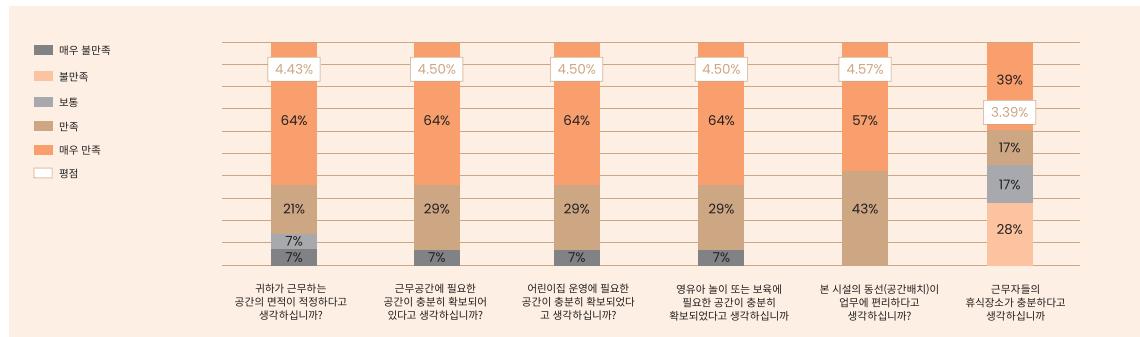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실과 플레이홀에서 보내고 있으며 하원 후에는 교사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부재하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는 비어 있는 플레이홀이나 공용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확인했다.



| 연천어린이집 내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1~3순위) |

| 현재 시설 이용 중 만족하는 공간 및 부족·개선 필요 시설 |

운영자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근무하는 공간의 면적이나 운영에 필요한 공간, 놀이 및 보육을 위한 공간, 공간 배치 등은 만족도가 높으나 휴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질문주관식에는 교사 휴게공간 및 교재교구 보관실로 답했으며 현재 원장실과 교사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분리 배치를 요구하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창고 및 기계설비 관련실이 부족하여 사무 공간 내에 함께 배치되어 있어 운영자를 위한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지만 이는 주어진 면적 내 어린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 관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용자 운영자를 고려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다.



| 교직원 시설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조사 및 면담결과 종합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부터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어 어린이 및 부모, 교직원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유연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열고 닫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사 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조성 기준에 따른 현행 법적 기준을 준용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들의 정서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 또한 안전하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며 각계의 노력이 함께할 때 어린이가 행복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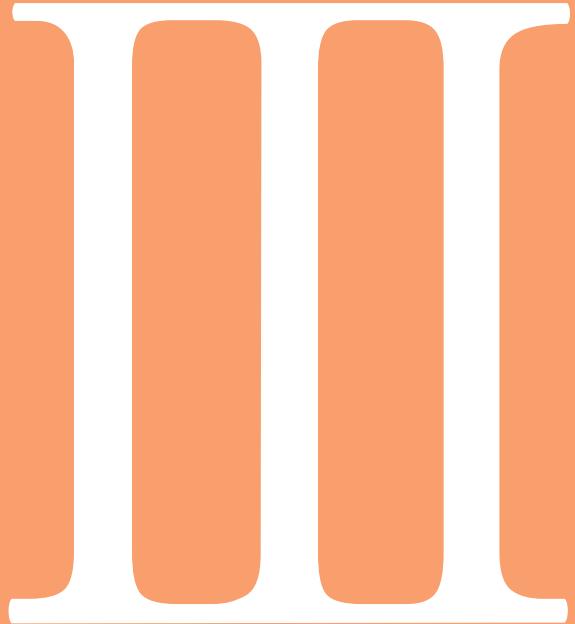
©정광식





좋은 공공건축 03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미래



미래를 위한 투자: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어린이집 운영하기

손승희 교수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바빠진 부모들을 위해 자녀 양육 역할을 대신해 줄 사회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 범위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 양육의 대안적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중인데 이러한 논의에서 ‘아이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는 누구인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린이집의 주요 이용자는 만 0~5세 영유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이들의 의견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의 생각이나 요구가 아이들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

심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이다.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라는 생각으로 영유아를 배제하지 말고, 영유아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안에서 영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 할까? 어떤 곳에서 지내면 하루를 행복하게 지냈다고 느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싶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에 대한 과도한 열기로 영아들도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16년도에 조사한 육아정책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만 2세 영아는 하루에 4시간 45분 정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UN¹의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아이들의 놀 권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개정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기본 방향이 “유아의 놀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집 운영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

1

김은영(2016.12.10), 육아정책 Brief,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
로 괜찮은가?, 55호

미래를 위한 투자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헤크먼 Heckman이 연령별 인적 자원 투자에 대한 효과 연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16달러의 환원효과가 나타나지만 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직장에서 직원 교육에 16달러를 투자했을 때 1달러의 환원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투자 대비 교육의 효율은 영유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영유아기의 질 높은 교육은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이앤 애커먼 Diane Ackerman은 “놀이는 우리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배움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옥스퍼드대학 패들 연구소의 화이트 브래드

소장 David Whitebread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진화해온 이유는 어린 시절에 놀이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며 놀이는 인간 성장을 위한 모든 측면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놀이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인식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영유아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언제나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돌아보고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어린이집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한다.

어린이집의 실험,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최경숙 교수

인덕대학교
건축학과

글을 시작하며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¹ 53.5%, 2019년의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 합계 출산율² 0.92명, 2019년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어린이집 시설 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신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15년부터 어린이집 시설 수와 아동 수는 감소하여 2019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은 37,371개소, 아동 수는 1,365,085명^{2019. 1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이다.

한국의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양적 총족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영유아들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교육적 접근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보육에 적합하도록 세밀하게 조성된 양질의 건축 환경에서 교사가 영유아를 위한 보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어린이집 건축의 미래라는 큰 범주에서 글을 쓰려고 하니 예전에 이와 유사한 제목의 글을 쓴 기억이 나서 자료를 찾았다.

1998년 『건축 세계』 6월호에 게재한 「보육 시설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제안한 설계 고려사항은 5가지였다. 그러나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설계 고려사항의 항목과 내용은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잡지 게재 이후 어린이집 건축환경 연구 및 설계 자문을 하면서 '집과 같은 어린이집' 및 '실외 놀이터 필수'를 설계 고려사항에 추가할 필요성을 느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 어린이집의 설계 고려사항

집과 같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처음 경험하는 집단생활 공간이므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하다. 최근에는 무상보육 정책과 여성의 경제 활동 상승으로 인해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는 하루 평균 10시간, 1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어린이집에서 보낸다. 즉 어린이집에서 총 12,500시간 정도를 보내는 셈이다.²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First we shape our buildings : thereafter they shape us."

라고 말하였다. 만 5살 이하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건축 환경은 더

1 2009년 신생아 수 44만 4천여 명, 합계 출산율 1.15명 / 2014년 신생아 수 43만 5천여 명, 합계 출산율 1.21명 / 2019년 출생아 수 30만 2천여 명, 합계 출산율 0.92명

2 최목화 외 7인 저자, A. R. Olds 원저, 보육시설 환경디자인, 교문사, 2009, 3쪽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의 특성은 대체로 ‘집’이 갖는 보호감, 소속감, 친밀함, 익숙함, 안정성, 편안함, 자유로움, 선택, 자율, 휴식, 자기 표현, 사생활, 영역성 등이다.³ 그러므로 어린이집은 집과 같이 친밀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실외 놀이터는 필수

실외 놀이공간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하루 일과에 중요한 기본 요소로 간주되며 영유아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적 기준으로 꼽힌다. 실외 공간은 장소 크기가 작더라도 햇빛과 구름, 기온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실외에서 계절 변화를 느끼며 자연과 매일 교감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실외 활동은 영유아가 하루 일과에서 ‘배터리를 재충전하는recharge their batteries’ 효과를 가진다.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은 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을 기준으로 실외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놀이터 설치 규정이 있는데도 여전히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대체 놀이터를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설치된 놀이터 시설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⁵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 시설 밀집 지역 등과 같이 지역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 놀이터를 인가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 놀이터 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다^{2020 보육사업안내 44쪽.}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대지 분할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건물이나 실내 공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대부분 실외 놀이터가 없고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는 영어를 위한 놀이 기구나 별도의 놀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과 쾌적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실외 놀이공간은 영유아에게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실외 놀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보육 정원 규모에 따른 소요실 통합·분화

어린이집의 정원은 최대 300명이다. 아동 정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어린이집은 각 소요실이 모두 필요하다. 유희실의 경우에도 영아용 유희실과 유아용 유희실로 구분해야 한다. 아동 정원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실의 겸용이 요구된다. 즉, 원장실 겸 사무실, 식당 겸 유희실 등이 가능한 겸용 방식이다. 그러나 유희실을 보육실로 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보육실은 일차

3

최목화 외 7인 공저, A. R. Olds 원저, 보육시설 환경디자인, 교문사, 2009, 21쪽

4

이완정 최경숙 엄정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기준 정비 통합 방안에 관한 시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83쪽

5

이완정 최경숙 엄정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기준 정비 통합 방안에 관한 시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182쪽

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이므로 유희실을 현관 입구나 계단 입구에 개방된 형식으로 둘 수 있다. 최근에는 교사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교사실보육정원 21명 이상도 포함되어 이제는 필수 시설이 되었다.

복층화 대비 필요. 가급적 3층 이하로

2층 이상으로 복층화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보통 2개 층 이상인 경우가 많다. 지하층을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때 선큰 가든 Sunken Garden 으로 채광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층 이상 층에 보육실, 유희실 등이 있다면 식사를 위해 ‘덤웨이터dumbwaiter’를 설치해 계단을 이동하여 음식을 나르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실제로 건물 층수는 어린이집의 입지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영유아에게는 연천어린이집처럼 1층으로 된 건물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된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방재시설과 실 위치 조건 등을 만족하면 5층까지 가능하고 「2020 보육 사업 안내」에서는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 「2020 보육사업 안내」, 41쪽.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영유아와 교사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많이 하게 되어 쾌적하지 못하다. 그리고 4층이나 5층인 경우, 원장 등 운영자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2020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 기준」, 41쪽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집 건물은 3층 이하의 층수가 적절하다.

공간의 융통성 필요함

어린이집 정원 규모의 변경, 연령 아동 구성 변화 등에 따라 공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영아와 유아 그리고 연령별 구성에 따라 필요한 실의 층수와 보육실별로 아동 수, 교사 수, 보육실 면적, 필요 설비 등이 달라진다.

영아 보육은 과거에는 적었지만 2013년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영아 보육을 위해 기존의 유아 보육실이었던 공간을 영아 보육실로 바꾸면서 면적이 부적합하거나 우유를 타는 공간, 기저귀 갈이대, 낮잠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낳기도 한다. 그리고 동일한 보육실 내에서도 흥미 영역이나 활동 영역을 변경하는

데에는 공간의 융통성이 필요하며, 이는 교구용 선반이나 책상 등의 이동으로 가능하다.

보육실 이외 2차적 행위 공간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 외의 2차적 행위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2차적 행위는 식사, 조리, 기저귀 갈기와 화장실 가기, 수면 등을 말한다.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서, 미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실이나 도서 공간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미술실, 조리실, 음악실, 조리실 등을 위한 특별활동실이 필요하다고 한다.⁶ 그런데 법적 1인당 최소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 기준은 1991년 제정된 그대로인 채로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2차 행위 또는 특별활동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나 교사들이 면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문에 가까운 미래의 모델이라기보다는 20년 이후 먼 미래의 모델로 소개하고자 한다.

알토르 페르스콜라의 보육 공간은 각각

독립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별도의 현관이 있으며 라커실이 전실의 역할을 하고 주 보육실을 중심으로 4~5개의 작은 실이 연결되어 있다. 흥미 영역의 작은 보육실에 : 소꿉놀이실, 미술실, 물놀이실이 2~3개 있고 낮잠실, 화장실영아의 경우는 청결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 보육실에는 부엌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고 식사 또는 간식 활동이 이루어진다. 보육실의 면적이 넓고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식당은 따로 없다.

영아보육실에는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주 보육실을 중심으로 놀이실과 수면실, 청결실입식 기저귀 갈이대, 세면대 등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유아 보육실에서는 흥미 영역으로 구성된 주 보육실을 중심으로 미술실과 소꿉놀이실, 수면실, 화장실 등이 연결되어 있다.

부속실이 연결된 보육실

한국의 어린이집에서는 부속실이란 2개의 보육실 사이에 설치되는 화장실을 가리킨다. 1987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알토르 페르스콜라 Altörps Förskola 어린이집은 스웨덴과 한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 밀도, 1인당 국민소득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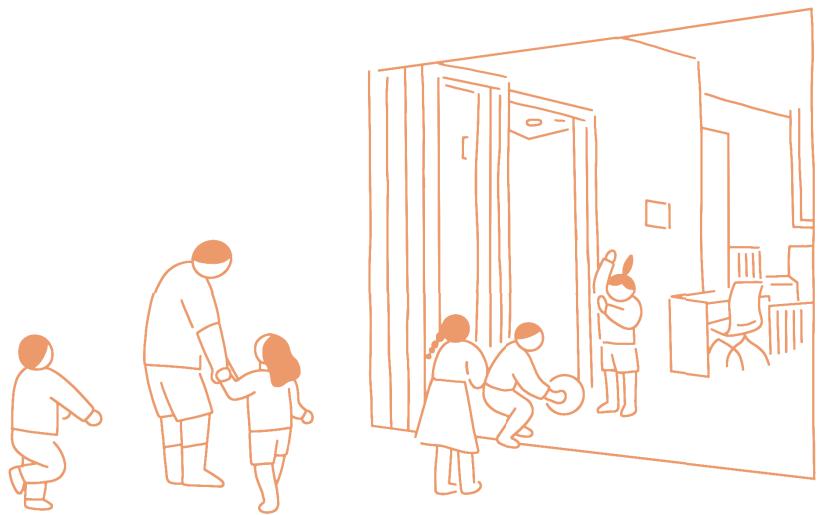
마치는 글

여기에 제안한 미래의 어린이집을 위해 항목들이 모두 어린이집 설계에 있어 10년 내의 가까운 미래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꿈꾸고 실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을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만

6

2014년, 2017년, 2020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 설계 기술자문을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특별 활동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약 예산이 충분하고 대지 면적이 넓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와 정부의 정책,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을 희망하는 건축주와 운영자의 의지, 그리고 건축가와 조경 전문가 등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9),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 작품집
- 김상호, 여혜진, 이여경(2016),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영애(2013), '[특집] 어린이집 건축계획 기준',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57n.9(2013-09)
- 김은영, 김진경, 최경숙, 조운주, 조혜주, 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인철(2002.2.), 「작품] 성동구립 성수2가 3동 어린이집」, 월간 건축문화 No.249, 월간 건축문화사
- 김태영, 이민선(2019), 장소탐방 - 연천국공립어린이집, 「건축과 도시공간」, Vol.36 Winter 201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영주(2020), 「코로나 시대의 보육 환경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여성건축가협회
- 영국 건축·공간환경위원회(CABE), 「영유아 및 아동시설 비전」, 『Every building matters, a visual guide to designing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and other early years facilities and spaces』

찾아오시는 길



인근 기차역

경원선 연천역 →
버스(39-2, 55-6, 35-2, 55-2,- 100번),
연천중고등학교 하차



인근 버스터미널

연천공영버스터미널
→ 39-8번 버스 탑승 → 연천공설운동장 하차



자가용 이용 시

경기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73
- 평택파주고속도로(서울·문산) → 올곡로 → 동서로
- 동부간선도로 → 신평화로 → 평화로



좋은 공공건축 03

모두가 함께 만든 아이들의 두 번째 집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펴낸이 박소현

엮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은이 임유경, 엄운진, 이화영

김지현 공간환경컨설팅 지음 소장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자우편 npbc@auri.re.kr

홈페이지 www.auri.re.k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www.npbc.or.kr)

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www.credada.com

비매품 ISBN 979-11-5659-305-8

-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이 책은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www.auri.re.kr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pbc.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매품



93540

9 791156 593058
ISBN 979-11-5659-305-8

